

# 수능수학, 흥현빈

## 학습칼럼 2016.ver개정//국영수 공부법의 끝.

흥현빈.com or http://binmath.tistory.com

### 제 2 교시

성명	
----	--

수험번호													3						
------	--	--	--	--	--	--	--	--	--	--	--	--	---	--	--	--	--	--	--

1

안녕하세요. 흥현빈 입니다. (Bin)

지금 보시는 이 "국영수 공부법의 끝" 칼럼은,

평균 3등급이라는 성적에서 서울대 정시 최초합이라는 꿈만같은 성적향상과정에서 제가 느끼고 실천했던 것들을 정리한 칼럼이고,

또한 제가 온라인상에서 "멘토"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단게 해준, 칼럼입니다.

이 칼럼이 쓰인지 2~3년이 지났고, 저도 여러 강사활동이나 멘토활동을 하며 성장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칼럼을 다시 읽으면 얼굴이 참으로 ..들 수가 없습니다.

해서, 좀 오글거림을 없애고 설명을 좀 더 추가해서 2016 버전으로 올립니다.

읽으시고, 방향을 잡는데 활용을 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런것들은 수학/영어 선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국어는 지문풀이를 해드려야 하는지라, 저로써는 힘들구요.

수학은 수학강사를 업으로 삼으려 하는 사람이니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글이 여러커뮤니티에 올라가니 그곳에 물어보셔도 되고,

친구의 소개나 오랜만에 읽어서 질문이 생기셨다면,

주소창에 "흥현빈.com" 치시면 나오는 제 블로그 > "학습상담소" 로 오셔서 질문 달아주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모든 공부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 효과가 있는 것이니 읽고 대학에 붙을 것 같은 상상을 단순망상으로 끝내지마시고 저처럼 실현시켜서 원하는 대학합격에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 Prolog

안녕하세요. Bin 입니다.

이전의 따뜻했던 말투 대신... 이번 칼럼은 조금의 훈계조로 가보려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재수로 서울대 공대 정시 합격했었던 사람이며,

현역 때 성적은 333. ( 평소에도 .. ) 재수 후 국영수 원점수 295 쟁취했습니다.

그 성적 향상폭이 매우 컸고,

처음 성적향상이 2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졌기에,

말로만 "남은 시간 동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믿도, 끝도 없는 격려대신

직접 몸소 느꼈던 그 기적같은 성적향상공부법을 써보려 합니다.

그 전에 앞서, 기본적으로 수능에 있어서 "공부" 란게 무엇인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수능이란 어떤 시험일까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침을 봅시다.

### - 시험의 성격 및 목적

: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으로 ~

뭘 측정한다구요? 네. " 능력 " 을 측정하는 겁니다.

국어 영역에서는 1000자 가량 되는 지문에서의 독해력을 측정하고,

수학 영역에서는 고교 교과과정 내에서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고,

영어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문장해석력과 지문 독해력, 논리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나아가 대학에서 그 두꺼운 전공서를 읽으면서도 핵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

원서로 이루어진 전공서적을 읽으면서 문장해석이 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지 등 말 그대로 대학교육에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일개 지식의 정도를 묻는 시험이 아니라 이겁니다.

즉 여러분이 수능이 가까워오면서 점점 더 배우는 내용이 많아진다면,

헛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헛공부.

개념정리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점점 더 내 것으로 만들어나가는, 그 체화의 과정이

공부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학생들은 " 내가 뭘 몰라서 틀린 걸꺼야 " 하면서 자꾸만 무언갈 배우려 듭니다.

이미 배운것도 자기것으로 못만드는 주제에.

"복습" 이 뭔지 모르는 거죠 결국.

그럴수록 철저히 도태됩니다. 성적이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러시면 안됩니다. 다시한번 ! 지식의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뭘 알려들지 마라 !!**

대학교육에서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그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능력..능력..

결국, 달리 말하면, " 머리(능력) 좋은 놈이 수능도 잘 본다."... 네 맞습니다.

그 머리 좋은게 수능이 요구하는 능력과 일치한다면요.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능 = 사고력 "**

" 아니그럼, 제 지금 성적이 안나오니까, 머리가 안좋은거고, 전 포기하란 소립니까? "

아뇨. 아뇨 그계아니라 .

대다수가 생각을 저리 해버리는게 문제입니다.

사고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하면,

" 난 지금 국어 성적이 안나와.

왜?

난 기본적인 글을 독해하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니까.

그럼 **그걸 키우는 공부를 하면 되겠다.** "

이렇게 방향이 잡히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하는 겁니다.

맨날

" 누가 1:1 대응하면서 본문에서 이잡듯이 뒤져서 찾아 풀으랬어 "

하면서 지문이란 보기 왔다갔다하면서 시간 다 써가면서 푸시는게 아니구요.

자기 공부인데 본인들 스스로 자기 공부법이 정말 성적을 올릴 공부법인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누가 이렇게 하랬더라 .. " 만 듣고 아무 점검없이 실행하고 있진 않나요?

"능력" 을 테스트하는 시험인데, 또한 그 능력이 개개인마다 다르고

시작점 또한 다른데

아무 필터링 없이 곧이곧대로 공부법을 받아들이고 있진 않나요??

성적이 오르지 말지도 모른채 두려움에 덜덜 떨시면서.

제가 이 글에서 국영수 세과목 공부법을 다룰거지만, 여러분도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는 시점부터, 이 공부법이 정말 나와는 맞는지, 정말 상식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공부인지, 곧 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부법인지를

냉철히 분석하셔야 하고, 맞는다 생각되는 순간

온전히 자기 공부법으로 만들어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 수능 = 사고력. "**

덧붙여, " 머리자체는 그렇게 단기간에 성장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잘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가령, 방학 때 나름 선행한답시고 다음학기 책을 펴들고 공부할라 했는데,

도통 이해가 안돼.

시그마가 뭔지 로그가 뭔지 아니 이걸 뭐란 말인가.

그런데 정착 그 학기가 되서 책을 펼쳐드니 아 이제야 이해가 좀 되네.

중학교때부터 조금씩 중복되어왔던 과탐내용들. 고 3이 되니 술술 이해되는데

예전엔 뭐가 그리 어려웠었는지.

+ 제 경험에 비추어, 1년은 충분히 긴시간입니다.

전 단 2달만에 정말 제 사고력이 성장하는걸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물론.

물론, 제 머리가 좋은 걸수도 있고, 그걸 재수하면서 뒤늦게 깨달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제 머리가 좋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좋아요)

일단 성적이 올랐다는 것은,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력 자체의 증진**이 있었음을 뜻하고,

또한 제 자신이 고 3을 결코 헛되이 보낸것이 아니기 때문에  
( 수능의 입장에서선 철저한 샅질로 1년을 보냈..)

비슷한 공부량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급격한 향상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제가 올바른 공부법을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 잘난 공부법이 무엇인지, 하나씩 뜯어 봅시다.

다음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 국어영역 >

다음지문 먼저 풀어보세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부가 축적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시민계급은 이전의 귀족과 성직자들이 즐기던 역사화나 종교화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친근한 주제와 형식의 그림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취향에 따라 출현한 정물화는 새로운 그림 후원자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다. 화가들은 다양한 사물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욕망을 그려 냈다. 동시에 그들은 그려진 사물을 통해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기독교적 윤리관을 암시했다.

루벤 보쟁의 <체스 판이 있는 정물-오감>에는 테이블 위로 몇 가지 물건들이 보인다. 흑백의 체스 판 위에는 카네이션이 꽃혀 있는 꽃병이 놓여 있다. 꽃병에 담긴 물과 꽃병의 유리 표면에는 이 그림의 광원인 창문과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빛의 효과가 미묘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 빛은 테이블 원편 끝에 놓인 유리잔에도 반사될 뿐만 아니라, 술잔과 꽃병 사이에 놓인 ㉠ 흰 빵, 테이블 전면에 놓인 만돌린과 악보 악보 지갑과 트럼프 카드에도 끌고루 비치고 있다. 이처럼 보쟁은 ㉡ 섬세한 빛의 처리를 통해 물건들에 손으로 만지듯한 질감과 함께 시각적 아름다움을 부여했다.

이 그림의 부제가 암시하듯, 그림 속의 사물들은 각각 인간의 오감을 상징한다. 당시 많은 화가들이 따랐던 도상적 관례에 의거하면, 붉은 포도주와 빵은 미각과 성전을 상징한다. ㉢ 카네이션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후각을, 만돌린과 악보는 청각을 나타낸다. 지갑은 탐욕을, 트럼프 카드와 체스 판은 악덕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모두 촉각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림 오른쪽 벽에 걸려 있는 팔각형의 거울은 시각과 함께 교만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사물들의 다의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감을 주제로 그린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로부터 이 그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오감 정물화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강조하며, 현실의 욕망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라고 격려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중세적 도상 전통에서 '일곱 가지 커다란 죄' 중의 교만을 상징하는 거울에 주목하게 된다. 이때 거울은 자기 자신의 인식, 깨어 있는 의식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 이 그림은 감각적인 오감 악덕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을 가다듬고 경계하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보쟁의 정물화 속에 그려진 하나하나의 감각을 음미하다 보면 매우 은은하고 차분한 느낌과 함께 일종의 명상에 젖게 된다.



위 글에서 언급된 것은? [1점]

- ① '보쟁' 이외의 화가들의 그림에 대한 자세한 고사
- ② '보쟁'의 작품에 대한 당시의 비평
- ③ 정물화의 재료 및 작업 도구
- ④ 정물화 후원자의 미적 취향
- ⑤ '보쟁'의 예술적 생애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7세기 정물화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림 속에 어떤 사물들이 그려졌는지 정확히 읽어 내야 한다. 다음으로 사물들의 상징적 의미를 도상적 전통과 관례에서 찾는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상징적 의미로부터 이 그림의 내재적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다의적인 도상들을 통해 올바른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의 두 단계 읽기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특정 미술가의 양식, 동일한 주제를 다룬 동시대 다른 미술가들에 대한 연구 등에 유념하면서 도상의 내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① ㉠을 읽는 과정은 그려진 사물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② ㉡은 도상적 전통과 관례를 통해 그 상징적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 ③ ㉠, ㉡의 읽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의 의미를 제대로 읽기 어렵다.
- ④ ㉣처럼 읽을 수 있는 것은 사물들의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시각이 다른 감각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 ⑤ ㉠~㉣으로 보아 17세기 정물화는 일상의 사물을 그렸지만 단순하지 않은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다.

빛의 사용 방식과 효과가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빛과 어둠의 극단적 대비를 통해 인물의 내면적 고통과 외로움을 표현한 그림
- ②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에 대응하는 작은 색점을 통해 그 빛의 느낌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그림
- ③ 프리즘을 통해 본 태양광을 무지개빛의 동심원 형태를 이용해 음악적 리듬감으로 치환한 그림
- ④ 촛불과 그 역광이 만들어 내는 엄숙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통해 기독교적 경건함을 암시한 그림
- 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 따스한 감촉의 양탄자와 다양한 색채의 과일, 번쩍이는 장식물을 조화시킨 그림

국어 영역 독서지문에서의 출제의도는 1000자 가량 되는 지문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선지들과 맞는지 틀리는지 비교해가면서 하는

틀린그림따위식의 풀이가 **절대** 아닙니다.

1000자 가량되는 글 속에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

그것에 근거하여 글을 읽어낼 수 있는지가 출제의도입니다.

뭐 뻔하지만 주제를 올바르게 잡았는가 겠지요.

## " 주제를 올바르게 잡았는가 "

뻔하지만 웃긴건.. 그렇게 뻔하다 하면서도 결국 본인들은 그렇게 읽어내질 못합니다.

제가 가르쳐봐서 알지만 대다수가 이런 비문학 지문 읽어내는 방식은,

1. 지문 읽고 2. 문제 본다. 3. 1번 선지보고 4. 지문가서 찾는다.
5. 2번 선지보고 6. 지문가서 찾는다.... 무한반복.

그쵸 ? 어차피 이렇게 풀거면서 지문은 도대체 왜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사들이나 선생님들은, 우습게도 해설도 저런식으로 합니다.

내용일치선지에서, 이걸 1문단에 있었지? 이걸 2문단에 있었지? 하면서요.

아니 그런식이면 누가 해설을 못합니까...

그렇게 다 찾아보라고 낸 문제도 아닙니다. 출제의도자체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푸는건지,

문제 해설보단 지문 읽어가는 방식 먼저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위해 다음페이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부가 축적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시민계급은 이전의 귀족과 성직자들이 즐기던 역사화나 종교화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친근한 주제와 형식의 그림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취향에 따라 출현한 정물화는 새로운 그림 후원자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다. 화가들은 다양한 사물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욕망을 그려 냈다. 동시에 그들은 그려진 사물을 통해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기독교적 윤리관을 암시했다.

루벤 보쟁의 <체스 판이 있는 정물-오감>에는 테이블 위로 몇 가지 물건들이 보인다. 흑백의 체스 판 위에는 카네이션이 꽂혀 있는 꽃병이 놓여 있다. 꽃병에 담긴 물과 꽃병의 유리 표면에는 이 그림의 광원인 창문과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빛의 효과가 미묘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 빛은 테이블 원편 끝에 놓인 유리잔에도 반사될 뿐만 아니라, 술잔과 꽃병 사이에 놓인 ㉠ 흰 빵, 테이블 견면에 놓인 만돌린과 펼쳐진 악보, 지갑과 트럼프 카드에도 골고루 비치고 있다. 이처럼 보쟁은 ㉡ 섬세한 빛의 처리를 통해 물건들에 손으로 만지는 듯한 질감과 함께 시각적 아름다움을 부여했다.

이 그림의 부제가 암시하듯, 그림 속의 사물들은 각각 인간의 오감을 상징한다. 당시 많은 화가들이 따랐던 도상적 관례에 의거하면, 붉은 포도주와 빵은 미각과 성찬을 상징한다. ㉢ 카네이션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후각을, 만돌린과 악보는 청각을 나타낸다. 지갑은 탐욕을, 트럼프 카드와 체스 판은 악덕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모두 촉각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림 오른쪽 벽에 걸려 있는 팔각형의 거울은 시각과 함께 교만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사물들의 다의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감을 주제로 그린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로부터 이 그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오감 정물화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강조하며, 현실의 욕망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라고 격려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중세적 도상 전통에서 '일곱 가지 커다란 죄' 중의 교만을 상징하는 거울에 주목하게 된다. 이때 거울은 자기 자신의 인식, 깨어 있는 의식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 이 그림은 감각적인 온갖 악덕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을 가다듬고 경계하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보쟁의 정물화 속에 그려진 하나하나의 감각을 음미하다 보면 매우 은은하고 차분한 느낌과 함께 일종의 명상에 젖게 된다.



1000자 가량 짧은 글에서 필자가 자신이 꺼내려가고자 하는 것을 쓰기 위해선, 첫문단에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첫문단은 그냥 **흐름따라 읽어가시면서 핵심소재만 잡으시면 됩니다.**

첫문단흐름을 보면, 시민계급이 등장했는데, 자신들에게 친근한 그림을 선호했고, 결국 그 취향에 따라 정물화는 물질적 풍요와 욕망,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윤리관을 암시했다.

한계 결국 이 글의 핵심소재가 되는겁니다. 왜? 첫문단에 흐름을 따라가 결국 끝이 저러하니. 앞으로 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은 저 핵심소재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집중!! 해서 그 부분을 잡아내야합니다. **메모를 하던가 밑줄을 긋던가.**

2번째 문단 보면 갑자기 루벤보쟁의 그림이 나옵니다. 뭐 흰 빵이었고 지갑도 있네요. 시각적 아름다움을 부여했다고 하네요.

중요한가요?  
아뇨!! 왜?

이 글의 주제, 핵심소재는 철저히. **미적취향에 따른 정물화 아니까요.**

쫓속해서 세번째 문단, 글 내용을 보면 카네이션, 악보, 지갑, 트럼프카드 .. 가 상징하는 바가 나타내어있네요.

아니 왜 여기다 밑줄을 긋나요 도대체.... 이글의 핵심소재가 무어라구요?

**미적취향에 따른 정물화.**

네번째 문단 볼게요.

"~에도 불구하고". 무슨 의미죠?

네. 2, 3문단은 핵심소재얘기가 아닌 철저히 "주변정보"에 관한 얘기였다. 는걸 필자가 직접 쓰고있습니다.

계속읽어보면. 아 드디어 나오는군요.

**"당시 대부분의 오감 정물화는 ~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라고 격려했다."**

? 주제죠? 핵심소재 입니다. 여기에 밑줄긋고 여기서 **드디어나왔구나 !!** 하면서 머리를 빠르게 굴리셨어야 합니다.

또한 ㄷ도 마찬가지로 "부름 경계" 하는 내용을 쓰고 있네요.

결국 이 지문은 처음과 끝문단에서 **취향에 따라 정물화는 물질적 풍요와 욕망, 부와 화려함을 경계하는 윤리관을 암시했다.**

라는 주제를 두번 쓰고 마치는 아주 단순한 글이었습니다.

이글을 읽고 머릿속에 "루벤보쟁" 따위가 떠오르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네덜란드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부가 축적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시민계급은 이전의 귀족과 성직자들이 즐기던 역사화나 종교화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친근한 주제와 형식의 그림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취향에 따라 출현한 정물화는 새로운 그림 후원자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반영했다. 화가들은 다양한 사물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욕망을 그려 냈다. 동시에 그들은 그려진 사물을 통해 부와 권력만을 경계하는 기독교적 유리관을 암시했다.

루벤 보쟁의 <체스 판이 있는 정물-오감>에는 테이블 위로 몇 가지 물건들이 보인다. 흑백의 체스 판 위에는 카네이션이 꽃혀 있는 꽃병이 놓여 있다. 꽃병에 담긴 물과 꽃병의 유리 표면에는 이 그림의 광원인 창문과 거기에서 오는 다양한 빛의 효과가 미묘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 빛은 테이블 왼편 끝에 놓인 유리잔에도 반사될 뿐만 아니라, 술잔과 꽃병 사이에 놓인 ㉠ 흰 빵, 테이블 전면에 놓인 만돌린과 악보, 약보, 지갑과 트럼프 카드에도 골고루 비치고 있다. 이처럼 보쟁은 ㉡ 섬세한 빛의 처리를 통해 물건들에 손으로 만지는 듯한 질감과 함께 시각적 아름다움을 부여했다.

이 그림의 부제가 암시하듯, 그림 속의 사물들은 각각 인간의 오감을 상징한다. 당시 많은 화가들이 따랐던 도상적 관례에 의거하면, 붉은 포도주와 빵은 미각과 식관을 상징한다. ㉢ 카네이션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후각을, 만돌린과 악보는 청각을 나타낸다. 지갑은 탐욕을, 트럼프 카드와 체스 판은 악덕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모두 촉각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림 오른편 벽에 걸려 있는 팔각형의 거울은 시각과 함께 교만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사물들의 다의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감을 주제로 그린 다른 화가들의 작품들로부터 이 그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오감 정물화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강조하며, 현실의 욕망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라고 격려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중세적 도상 전통에서 '일곱 가지 커다란 죄' 중의 교만을 상징하는 거울에 주목하게 된다. 이때 거울은 자기 자신의 인식, 깨어 있는 위치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 이 그림은 감각적인 온갖 악덕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을 가다듬고 경계하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보쟁의 정물화 속에 그려진 하나하나의 감각을 음미하다 보면 매우 은은하고 차분한 느낌과 함께 일종의 명상에 젖게 된다.



이해하셨죠?? 주제를 찾고 그 주제 위주로 글을 읽어나간다.

설마 1000자 가량되는 모든 글이 주제라고 생각하지진 않죠??

분명 필자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주변정보를 가져다 쓸 것입니다.

그 주변정보를 읽어감으로써 독자는 주제를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것이지요.

바로 이런 글을 우리는 "**좋은 글, 유기적인 글**"이라 하는 것입니다.

짧..필자가 그렇게 좋게 쓰면 뭐하나요 그렇게 읽지를 못하는데..

2, 3문단에 밑줄이 그어져있거나 중요하다 여겼으면 철저히 반성하셔야합니다.

문제보겠습니다.

위 글에서 언급된 것은? [1점]

- ① '보경' 이외의 화가들의 그림에 대한 자세한 묘사
- ② '보경'의 작품에 대한 당시의 비평
- ③ 정물화의 재료 및 작업 도구
- ④ 정물화 후원자의 미적 취향
- ⑤ '보경'의 예술적 생애

윗 글에서 언급된 것이라...

찾을 건가요? 5개를 다??

아니 여러분. 언급된 것입니다. 맞는 것 빼곤 언급된 적이 없으며, 없는걸 어찌 찾는다 하시는 건가요...

자. 평가원이 이 문제를 출제했을 때, 설마 "구석탱이에 있는 조그마한 내용" 을 묻는 문제로 냈을 까요?? 아니죠??

즉 이 문제는 "위 글에서 주로 언급된 것은?" 이라 할 수 있고 그 것은 곧

**"주제"**

입니다.

주제.. 뭐죠? 4번입니다. 너무 쉽네요.

글을 저처럼 아까 정확히 핵심을 잡고 읽었더라면, 정말 속보고 답 찍을 수 있는 문항입니다.

다시말해요.

독서지문은 틀린그림찾기 가 아니란걸.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7세기 정물화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림 속에 어떤 사물들이 그려졌는지 정확히 읽어 내야 한다. 다음으로 사물들의 상징적 의미를 도상적 전통과 관례에서 찾는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상징적 의미로부터 이 그림의 내재적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다의적인 도상들을 통해 올바른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의 두 단계 읽기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특정 미술가의 양식, 동일한 주제를 다룬 동시대 다른 미술가들에 대한 연구 등에 유념하면서 도상의 내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① ㉠을 읽는 과정은 그려진 사물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② ㉡은 도상적 전통과 관례를 통해 그 상징적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 ③ ㉠, ㉡의 읽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의 의미를 제대로 읽기 어렵다.
- ④ ㉢처럼 읽을 수 있는 것은 사물들의 다의성에도 불구하고 시각이 다른 감각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 ⑤ ㉠~㉣으로 보아 17세기 정물화는 일상의 사물을 그렸지만 단순하지 않은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자. 보기 문제입니다.

보기 가 주어진는데. 이 보기가 지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글이 주어질까요??? 아니죠 ?? 상식적으로 지문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보기를 읽을 때 지문의 주제를 다시한번 떠올리며 보기를 읽어야 합니다.

보기에서 이 글의 주제를 다룬 내용은 무엇이었죠??

"이 그림의 내재적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도상의 내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한다."

또한, 우리는 ㄱ, ㄴ, ㄷ 중에서 주제와 관련된것은 오로지 ㄷ 뿐인 것을 압니다.

그죠?

그럼 저라면, ㄷ과 관련된 선지 4,5 번을 먼저 볼 것입니다.

왜요?

평가원의 출제의도는 "너가 글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했으며 그 위주로 읽어냈는가" 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도 주제위주로 낼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시죠??

4번 선지보면, 시각이 다른 감각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틀리죠. 주제와도 완전 어긋나고, 보기에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끝 답 4번.

전 이려고 넘어갑니다. 국어영역에서 항상 만점에 30분 남기는 방법이요? 이겁니다 그냥. 철저히 출제의도에 맞춰 글을 읽고 출제의도에 맞춰 답을 골라낸다.

마지막 문제는 그냥 부분문제이네요.

빛의 사용 방식과 효과가 ㉔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빛과 어둠의 극단적 대비를 통해 인물의 내면적 고통과 외로움을 표현한 그림
- ②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에 대응하는 작은 색점을 통해 그 빛의 느낌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그림
- ③ 프리즘을 통해 본 태양광을 무지개빛의 동심원 형태를 이용해 음악적 리듬감으로 치환한 그림
- ④ 촛불과 그 역광이 만들어 내는 엄숙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통해 기독교적 경건함을 암시한 그림
- 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 따스한 감촉의 양탄자와 다양한 색채의 과일, 번쩍이는 장식물을 조화시킨 그림

a 를 읽어보면 촉각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래서 답은 5번. " 따스한 감촉의 양탄자."

평가원에서 글을 써내려가는 방식은 여러가지 있지만.

이 지문은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글입니다.

여러 기출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주제를 잡는 것은 기본이요 거기에

평가원이 글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써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하게 되면, 2분 30초 ~ 4분 30초 내로 모든 독서지문이 해결됩니다.

그럼 그냥 30분 쯤 남기고 화장실 한번다녀와서 편하게 검토하면 만점나오는겁니다.

물론.

물론.

그 과정이 정말 힘겹죠.

모든 기출을 저 방식으로 공부해보고 저 방식으로 공부해가면서

자신의 " 독해력 " 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계속 말하죠? 결국은 능력을 향상 시키는 거라고.

독해력이 애초에 출중한 이들은, 그냥 한번씩읽어도

저 모든 1000자 가량의 정보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번문제보고 " 어? 4번 말고 없었는데 " 가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모든 글의 구조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1:1 대응처럼 1번보고 지문보고

2번보고 지문 보고 해도

바로바로 찾아내기 때문에 다행히 시간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던가.

근데 여러분은? 아니죠? 아니니까 이 글 읽고 있겠죠.

저 또한 여러분과 같았고, 그 놈의 기출분석이 뭔지 한참 고민하다 보니

결국 수능이란 시험 자체를 이해,

저렇게 출제의도에 매우 부합한 독해법, 문제풀이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답니다. 국어영역은.

문학은 생략합니다.

## &lt;수학 영역&gt;



아무래도 제가 수학멘토이며 강사이다 보니, 이 부분은 제가 써왔던 글 복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칼럼- 만점, 안나온다고?>  
□ 최상위권들에게.

**첫째. 무조건. 무조건 목표는 만점이다.**

제가 재수시작 할 때, 제 목표는 전국수석이었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맞추고나니

모든 공부법, 생활, 의지 측면에서 만점을 목표로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령,

"만점을 받으려면 좀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전국 수석 하려면 오답을 꼭 해야하지 않을까?"  
"복습 귀찮긴 하지만 이정도 해야 수석할 자격이라도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요.

무슨말인지 아셨나요?

저렇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다보니 어느새 제가 만점자인마냥

만점자코스프레하고 있더라고요.

비아냥거리는게 아니라, 만점자이면 취했어야할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밥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초반엔 밥도 잘 안먹었고, 정말 피곤하지 않으면 쉬지 않았고.

복습 귀찮아도 다 해줬어요 정말 다

노트는 헤져가고 수능특강으로 개념잡았던 생2는 아예 표지 뜯겨나가고.

물론 수학에 대해 즐겨지만, 모든 과목에 있어서 이 정도가 되셔야..

만점에 가까운 점수"라도" 받습니다.  
(전 전체 5개이내로 틀린 것 같네요-13,14수능)

목표는 무조건 만점. 목표뿐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만점자는 어떻게 공부할까? >>이정도 해줘야 되지않을까  
>>>만점자라면 더하지않았을까 >>>더하자"**

이정도 되주셔야합니다. 알겠죠?

**둘째, 본인이 수학 1등급인데, 95~97을 왔다갔다하는 유형이면, "양치기 +실수줄이기" 가 답이다.**

흔히 두가지 유형이 있어요.

엄청 빨리푸는데 실수 많이하는 // 느린데 한번풀때 정확히, 다풀면 시간 딱맞는.

어느 유형이든. 양치기(문제를 매우 많이 풀)는 필수입니다.

양치기를 하는이유는 **계산실력 + 수학적 내공**. 이 두가지입니다.

계산실력이란 것은, [계산속도/ 정확도 / 역치값] 으로 정의됩니다.

계산속도가 빠르고 정확해야 30문제 다풀고 시간이 안정적으로 남아 검토할 수 있으며,

역치값이 높아야 웬만한 장문의 풀이를 요구하는 문제도 어려움 없이

터럭 풀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 5문장짜리의 풀이에 땀흘리는 반면 누군 암산으로 풀어재깁만큼 간단하게

여깁니다.

그건 많은 문제풀이로 닦아온 계산실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대가 최상위권이시라면, 달리세요. 극한을 향해. 좀더 풀어채끼고. 좀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히세요.

제가 재수시절엔 약 2500문제기량을 풀었고(그냥 서점에 안푼 책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장에서 풀었을 때 30문제 다풀고 정확히 50분을 남겼습니다.

여유롭게 검토하고, 만점받았습니다.

물론 50분남겨야 그대가 만점이오 는 아니지만.

어떠한 난이도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 또한 상위권분들은 알만한

어디서 실수했는지 모를 그 불안감을 없애기엔 50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푸세요.

풀어채끼세요.

계산실력에 대해 언급했고, 다음은 수학적 내공입니다.

이것도 사실 아까말한 계산실력과 어느 정도 중첩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양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난이도 있는 고난도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술한 고난도 문제를 풀어내면서 자신의 수학적실력, 사고력, 내공은 상승할 것이며

웬만한 문제는 10분이내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한문제가지고 고민하는 것.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한두문제가지고 성적향상을 바라진 마세요.

그 고민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내 수학실력 자체를 키워줄 사고력이

형성되는 겁니다.

제가 현역 시절 3등급 후반점수를 맞을 때와

재수시절 50분남기고 다맞을 그 때의 사고력은, 당연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느낄 정도로 정말 1년만에 내 두뇌가 많이 성장했구나 할 정도로

수학영역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고력 증진이 이뤄졌습니다. 엄청난 문제풀이 + 고민으로요.

### 셋째, 외우려하지 말고 체화해라.

만약 여러분이 오답노트를 하고 눈으로 보고 있다면.. 접으세요.

수학은 손이 기억하는 겁니다.

어느 문제를 풀 때 머리가 인지하고 푸는 것이 아닌 (킬러문항제의)

이미 손이 가서 해결하고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모든것이 체화되어있는 상태가 되어야하는 마당에, 눈으로 보고있다.. 즉 시 쓰십시오.

써가면서 복습해야 합니다.

내손이 기억하게.

내 온몸이 그 문항에 대해서 모든것을 기억하게 손으로 쓰고 또 쓰세요.

전 그런의미에서 오답노트했습니다.

그냥 틀린문제 크게 표시해두고 여러번 풀었어요. 물론..

아주 여러번이요.

다시말하지만, 무조건 쓰세요. 오른손에 박히는 굳은 살을 보며 희열을 느껴세요.

ㅎㅎ..최상위권을 위해 쓴거라긴 하지만. 만점은 딱 이정도 해야 나오는것 같습니다. 적어도 수능장에선.

재수학원 시절 일년내내 만점 창창받던 아이들이

수능날 딱 저 혼자만 만점받는 상황을 보면서

제 공부법이 옳았음을 느꼈었던 기억이 있네요.

만점이란건요.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며, 단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않는 그런 . 그런점수입니다.

그에 합당한 노력하세요. 본인이 어떤지 어느정도에 절실함을 지니고 있는지.

실사 풀리지 않았는지

그건 본인들이 잘 알겁니다.

다시 꼭잡으시고!! **세자리수가 아니면 점수가 아니다란 생각을 가지고.**

달리십시오.

<칼럼 -수능수학만점의 길\_1>

### 1. 개념이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쇼?? 애시당초 수능수학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문제를 풀 기본공식을 알아야 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어디까지가 개념인가? 입니다.

대부분 학생, 선생들이 언급하는 개념의 정의는,

기본 교과과정 공식들의 이해를 말합니다. 공식을 알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그 공식이 나왔는지.

공식은 어떠한 문제에 어떻게 쓰이는지(유형학습) 정도겠쇼.

사실 수능수학영역에서 만점을 받는 데에 필요요소 중

이 개념이해가 80%이상 차지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자체에 대한 이해가 되어있지 않다면 문제에 손도 못대는 거니깐요.

뭐.. 개념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가 중요한건 아녜요 사실. 우리가 궁금한건

도대체 어떻게 만점을 받느냐 이므로

성적향상에 초점을 두고 개념이해란 것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개념이해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개념학습의 단계는 공식자체를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강들어도 되고,  
 학교/학원수업으로 해결해도 되고, 혼자 독학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이 단계에서 너무 많은 고민하지마세요 ㅠㅜ  
 어느 인강을 들어야 할까요 무슨책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등등..  
 물론 추천하는 인강이나 책은 있지만 멘토 되는 입장으로써 언급할 부분도 안되고,  
 저는 인강도 들어본 적이 없기때문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 보다는 되도록이면 빨리 시작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는 (복습 철저히 하는것..) 것이  
 훨씬 중요한 단계입니다.  
 공식을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제풀이 단계는 사실 개념학습에 포함되는 범주긴 합니다. 공식만 배우고 넘어가는  
 인강이나 교재는 없기 때문에.. 같이 붙어있는 예제를 품으로써  
 배운 공식에 대한 이해를 더합니다. 딱히 할말은 없는 부분이구요.  
 양치기. 이부분...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양치기는 사실 수학공부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이 이 칼럼 읽으시면서 다른건 다 잊어도되지만  
 이 양치기만큼은 부디 부디 머릿속에 새겨가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어릴 적 많이 했던 구구단을 떠올려볼게요.  
 우리가 처음 구구단을 배울 때 되게 힘들었죠?.. 버벅거리고 머릿속으로

‘다음에 올 건 뭐지..’  
 하면서 되게 힘겹게 외우셨을 거예요.  
 허나, 그러나 그것을 매우 반복하고 반복함에 따라 힘들었던 과정은 다 사라지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특출 나올 정도로 구구단 자체가 쉬워졌을 겁니다.  
 등감하시나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오시는지요..  
 여러분이 구구단 자체가 쉬워졌을 때, 그 단계까지는 **여러 복습과정**이 있었습니다.  
 많이 해본거죠.  
 그래서 구구단이란 것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고,  
 복잡함, 막연함, 어려움은 줄어들어 정말 껌처럼 여길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모든 공부에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념, 공식을 배웠을 때. 그것에 대한 이해도, 내공이 깊어지려면  
**많이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구요?  
**많이 경험, 즉, 써본다구요.**  
 내가 어떠한 공식을 떠올리는데에 시간이 걸리고 낯설다면,  
 혹은 그 단원 문제들(2, 3점) 을 푸는데에 있어 턱턱 막히고 낯설다면.  
 그건 아직 덜 된 겁니다. 문제 푸는 양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공식, 단원에 대한 내공이 부족한 거예요.  
 구구단이 익숙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복습 과정,  
 즉,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그 공식에 대한 이해도, 익숙함을 키워셔야 합니다.  
 계속 같은 얘길 하는데...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상위권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수능이란 시험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어느나를 묻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교과과정 내에 개념을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얼마나 잘 다루는 지를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출제의도에 맞춰 공부하시면 됩니다.

가끔가다 빨리 푸는 법 같은 이상한 공식들 배우거나 가르치시는 분들 있는데

그게 무조건 나쁘단건 아니지만 그 공식들도 일반 공식들과 마찬가지로 무수한 반복과 문제풀이가 받쳐주어야 합니다.

결론으로...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획기적인 공식을 배우든

그게 정말 온전히 여러분 것이 되려면 수많은 반복과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개념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개념을 어떠한 교재, 인강으로 배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단지 교과과정 내의 그 공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많은 문제와 부딪혀보면서 그 공식의 대한 거리낌이 없어지고 익숙해지는 것.**

단지 그것입니다. 정말로. 다른 사탕발림말의 솔깃 하지마시고

개념이 이해가 안간다,

잘모르겠다 싶으면 부딪혀보세요. 초반엔 분명힘들어요.

힘드는데 힘든과정의 당연한 거예요.

구구단 외울 때 생각해보시고 !! 절대 포기 마시고 끝까지,

개념이 온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풀고 또 푸세요.

**개념이해 = 양치기.**

- 수학영역의 관련된 칼럼은 제 블로그에 수록되어있습니다.

## <영어 영역>

□

영어영역. 성적이 제일 안오르는 과목이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뇨. 제일 안오르는과목이 아니라

" 개인이 혼자 공부법을 찾기가 제일 힘든 과목 "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영어 영역에서 여러분이 키워야할 능력은, 단 두가지 입니다.

첫째, 문장해석능력. 둘째, 논리력.

문장해석능력부터 말하지요.

뭐.. 바로 와닿으시죠? 보통 말하는 구문해석능력 따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어떻게 능력을 키울것인가? 를 다루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최근에 본 모의고사를 꺼내셔서 딱 30분만 투자해주세요.

모든 독해지문을 읽어내려가면서 해석이 전혀 안되는 문장,

바로 안보이는 문장(조금 보면 보이긴하는) 들을

모두 형광펜으로 그어 줍니다.

세보세요. 몇개나 있나요?

애초에 해석이 안되는 문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문장해석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다들 말하죠. 영어 지문 모두 한글로 옮겨놓으면 누가 못푸냐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의 최종목표. 즉 수능전날까지의 목표는

모의고사 한회에서 모르는 문장이, 또한 막히는 문장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이게.

여러분은 무슨 공부하고 있나요? ... EBS? 설마? ...

그럼 문장해석능력은 출중하신가요? ..아니죠?

전 EBS 초반에 볼 거름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 문장해석능력자체가 너무 떨어져서 , 또한 고3 때 마냥 EBS 달달 외우면 되겠지 하는

**말도 안되는 생각**으로 모든 연계지문을 10회독 하고 완벽체화한 상태로 수능 보고 탈탈 털린 기억이 있기때문이었지요.

EBS 가 추가 되면 절대 안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구요 상식적으로.

대학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데, EBS 너는 잘 외웠니? 하고 문제를 출제 할까요? 아 물론 요즈.

바로 득불수 있는 한두문제. 여러분은 그 한두문제 얻으려고 정작 문장해석능력 키울 시간을 삼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능의 관점에서, 기본없이 EBS 파고 있는것은 정말 다른 어떤 표현 필요 없이 "**삼질**" 입니다.

표현이 과격하대구요?? 아뇨.. 전 지금 여러분이 하고있는 것에 배로배로배로 열심히 했고,

첫 세 단어만 봐도 뒤에 모든 내용을 알정도, 빈칸문제로 변형되어 나오면 빈칸들어가 말이 무엇인지 이미 외워져있을 정도로 봤었고.

그 결과 철저히 참패 했기에. EBS를 파면 필수록 고3내내 성적은 떨어졌기에. 이렇게 "**삼질**"이란 표현을 쓰는겁니다.

자, 그럼 전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이미 댓글로 답변 받아보신분들도 많겠지만. (문장노트는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성적을왔다고 제일 많이 연락오는 부분이 어 부분입니다. ㅎㅎ - 2016 ver Comment)

바로 "**문장 노트**" 입니다. 수험준비중인 제 친구한테 줘버려서, 사진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드리죠.

여러분이 EBS던 된 책이던 아무튼 영어를 읽고 있는데, 한번에 안보이는

문장이 나왔다면, 아니면 아예 뭔지도 모르는 문장이

나왔다 하는 순간 형광펜으로 꼭 칠해주고 이 노트에 적어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 문장들은 여러분이 해석이 안된 문장이고, 그러므로 앞으로 돌파할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공부란 모름지기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약한 부분을 메꾸는 작업이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문장들을 줄여나가지만 하면 되는겁니다!! 와우 쉽네요.

이렇게 영어문장을 적은 뒤 , 그 아래에는 해석을 적거나, 아니면 그 문장구조를

적어 둡니다. 뭐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약점이 보이게 썼었는데,

가령 , "**이 문장은 주어가 너무 길어 동사부분을 내가 잘 찾지 못하였다.**" 식으로요.

문장구조를 몰라 못쓰는 건 어쩌냐? 하시는데 그런걸 선생님들한테 여쭙보거나 답지를 찾아보는겁니다..OnA로 질문을 올리던가요

정리만 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공부에 핵심은 바로

## 반복

예제 그 문장들을 주구장창 보는 겁니다. 등교, 학교, 밥먹을때, 쉬는시간에..

무한번 보는 겁니다.

최소 10번.

다시 말하지만, 수능 시험은 결국 여러분의 능력을 묻는건데,

그 능력이 **고작 문장 몇번 봤다고 길러질까요?**

전혀

전혀 아니죠? 상식선에서도 그렇죠.

막힌 문장 손으로 짚어가며 이게 뭐더라 뭐더라 하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는 과정중에

여러분의 문장해석능력이 길러지는 것이며

또한 그과정을 무수히 반복하여 특별한 해석,해설없이도 그 문장이 술술 읽히는

그 순간까지 도달했을 때,

여러분의 문장해석능력은 정점을 찍는 것이지요.

즉, 문장정리 >>개념활용하여 해석 >>이해 >>반복 >>체화 >>기본 능력 상승.

이것이 영어 성적이 급상승하는 아주 직선코스라고 단언합니다.

.

.

아.참고로 문장들이 초반엔 넘쳐납니다. 30,40,50 문장.. 전 200개 까지 만들어

보았네요.

그러나 여러분이 문장하나하나를 돌파해감으로써,

한 문장과 비슷한 구조의 모든 문장들이 해석이 됨으로써,

점점 정리할 문장들은 줄어만 갑니다.

나중어가면 문장 찾느라고 책 막 뒤적대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제가 이 문장노트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점은. 6월모의고사 오답 했을 때

그 모든 문항들 중 모르는 문장이 하나도 없는, 정말 정리할 문장이 하나도 없는,

형광펜 들이밀 문장이 없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었네요.

그렇게 수능 3등급이었던 전 6,9, 수능 모두 백분위 98%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 아 물론, 이렇다할 기본 구문실력도 현재 없으시다면, 기본구문인강을 들으세요.

어떤 인강이 좋아요?

가 아니라 어떤 인강이든 제발 "확실히" 들으시고,

어서 그래도 막히는 문장들을 찾아 책을 펴서야합니다.

\* 참고로 필자는 국영수 모두 인강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고2 때 기본구문인강 한번 들은것 제외하구요 ㅎㅎ

자.. 둘째는, 논리력이요.

이 부분에서 드디어 기출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간단하게 쓰고 넘어가자면,

여러분은 기출을 통하여

### 왜 이 문제에 답은 이것인지, 왜 이것은 오답인지

를 철저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평가원의 논리를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요.

빈칸문제가.. 대표적이요. 왜 이 문장이 빈칸에 들어가야 하며,

왜 이 문장은 안되는지 를 철저히 분석해서 공부하셔야합니다.

무슨 빈칸 앞뒤만 읽으면 이렇다더네 따위에 말도안되는 풀이법따윈 접어치우세요.

아니 차라리 그 시간에 EBS 파세요. 물론 EBS도 삽질이지만, 저건 더더욱 삽질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공부법의 초점은 " 능력향상 ". 답찾는 공부법 아니라 이겁니다.

물론 이양저양 현재 여러분 등급 맞아서 대학 가실 분들은 말리지 않습니다.

제 글은 철저히 만점을 바라보고, 1등급과 만점의 꿈을 안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만점이란건요, 어떠한 요령 따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점수가 아닙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한치의 빈틈도 허용되지 않는 점수지요.

빈칸 앞뒤만 보고 빈칸 풀어오던 사람이 수능날 만점을 편안하게 쟁취할 수 있을 까요?  
아뇨! 전혀 !

한두문제쯤이야 운좋아 맞출 수 있겠죠.

하지만 철저히 능력을 중심에 두고, 공부해왔던 저같은 사람들은,

수능시험장이라는 그 압박감속에서도, 옆에 사람이 증열대고 앞사람은 코를

골수도 있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20분씩 시간 남겨가면서 여유롭게 1등급, 만점 쟁겨갑니다.

왜?

이미 그 정도의 사고력을 갖고있으니깐.

그렇게 공부하고 공부해서 겨우 키워놓은 사고력이니깐.

지식의 유무 따위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 여러분의 독해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니깐.

+ 단어는?

기본단어집으로 기본 단어체계를 갖추신뒤,  
문장노트와 마찬가지로 영어공부함에 있어서 모르는 단어들을 따로 정리해서,  
그 단어들 열심히 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였기에, 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항상 반복해주셔야 하고, 외웠던 것도 까먹을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시간내어 정리했던 모든 단어들을 다시 봐주는 시간 내주는게 좋습니다.

\* 듣기 : 이건...고교영어듣기 처럼 연계교재 듣기파일 받으셔서 항상 듣고 다니세요.  
음악 듣는 그 것쯤 빼시구요.

끝입니다.

어느정도 방향은 잡히셨나요?

단순 국영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가 아니라

제가 성적을 올렸을 때의 그 마인드와 철학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적올리는건, 정말 쉽습니다.

방향은 정해져있고, (뻘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웃기게도

뻘하디 뻘한 그 길을 달려나가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반 이상이 한달 뒤에 느슨해져있을테니깐요.

합리화를 시작하죠.

- 아, 문제 이제 좀 덜 풀어도될것같은데
- 2,3회독만 해도 복습에 충분할 것 같은데
- 이 문제는 안풀어도 될거야

여러분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냥 그저그런 다른 수험생들처럼

좀 만 더보고 좀 만 더 참고 풀어보고 하는걸 못해서

그저그런 등급을 수능에서 받습니다.

즉,

좀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가 되려면, 99%가 못해내는 것들을 해야 1%에 속할 가능성이라도 생기니까요.

열공하세요 !!

-홍 현빈